

## 주 5일 근무, 농촌교회에 바란다

정 태 일(목사, 경기 포천 사랑방교회)

### 1. 주 5일 근무제와 교회

모든 일이 그렇지만, 주 5일 근무제도 교회 혹은 농촌교회에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의 두 가지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특성 중에서 어떤 시각과 입장을 갖는가 하는데 따라, 그 결과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주 5일 근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라는 점과 주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따라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장애요인이 되고, 향락과 과소비 등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한다.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선교와 목회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 놀이와 여가활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독교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 사람들이 삶의 질을 추구하고 지기실현의 욕구를 이룰 수 있다는 점, 가족중심의 생활에 대한 욕구를 돕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말한다.

그러나, 교회는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변화

### 1) 일반적인 변화

주 5일 근무제는 사회와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또 교회와 교인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가져올 변화의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근무 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이다. 둘째로,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면,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나름대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욕구를 갖는다. 셋째로, 삶의 질을 추구하면 과소비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삶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욕구도 갖는다.

### 2) 교회생활의 변화

주 5일 근무제는 사회생활뿐 아니라, 교회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변화는 먼저, 교회생활의 장(場)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시간의 여유를 갖게 된 교회는 곧 장소의 여유를 갖는 것으로 연결된다. 충분한 시간을 활용하여 교회적인 삶을 이룰 수 있고, 충분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장소를 옮길 수 있으며, 장소의 변화는 곧 장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도심에서 떠나 자연으로, 혹은 농촌으로 교회생활의 장을 옮길 수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교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여 다양한 장소에서의 다양한 생활을 경험하고, 교회학교는 교재의 한계를 극복하여 충분한 시간과 열린 학습의 장을 통해 느낌

이 있고 실습이 가능한 경험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여유는 교인들에게 교회의 본래적인 삶의 깊이를 더 할 수 있다. 개인의 내면적인 면을 균형있게 정리하고, 인간관계의 회복과 참 만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안에서 함께 사는 삶의 원리와 실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결국, 사회의 변화와 교회생활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농촌교회와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선교적인 차원에서 농촌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 3. 농촌교회에 바라는 것

#### 1) 역할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 5일 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교회의 경우 그 역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촌교회의 현실은 지역적인 상황, 주변환경, 교인의 수, 재정적인 형편, 교역자의 실태, 삶의 내용 등에서 다양하다. 농촌에 위치한 교회이지만 규모나 내용적으로는 도시교회와 같은 경우가 있고, 어떤 교회는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교회의 존재자체가 불안할 만큼 빈약하고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농촌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교회에 따라서는 이 글의 내용이 거리감이 있고, 전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 중에서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생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먼저, 농촌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농촌교회의 교회와 목회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주신 공통된 사명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주신 서로 다른 고유한 사명도 있다. 농촌교회는 농촌교회만의 고유한 사명이 있고, 벽지의 약하고 어려운 교회는 그 나름대로 고유한 사명이 있다.

이렇게 보면, 교회에 대한 생각에서 '농촌교회'라는 표현은 '도시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도시교회의 도움이 꼭 필요한 교회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은 각각의 고유한 사명을 생각하지 않을 때 갖는 느낌이다. 오히려, 현대 문명으로 인해 메마르고 각박한 도시생활을 탈출하여 자연에서 생명을 가까이 느끼며 내적인 풍요를 누리는 '전원교회'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목회에 대한 생각도, 개 교회의 교인만을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도시교회의 목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 것이다. 목회의 대상을 한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목회활동의 내용도, 도시교회를 포함한 전체교회를 위하고 농촌교회가 도시교회에 도움을 주어야 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촌교회는 물질문명의 사회에서 지치고 메마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휴식과 치유, 생명의 회복과 영적 재충전, 그리고 믿음과 삶의 본질을 경험하도록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이다. 따라서, 지도자들의 생각이 바뀌어 지고, 그래서 농촌교회의 역할이 바뀌어지기를 바란다. 필자가 시무하고 있는 사랑방교회는 서울 사람들을 출애굽(탈출: Exodus)시키기 위해 세워졌고, 결과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교회이다.

## 2)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

### (1) 전원교회로써의 공간

농촌교회가 자연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은 시간의 여유로움을 이용해 농촌지역을 찾는 도시인들에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다.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심적인 부담감이나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에게 고향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따뜻함과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설교를 포함한 예배의 내용과 방문객들에 대한 부담 없는 배려는 충분히 마음을

써서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본래 전원교회는 단순히 장소를 전원지역으로 옮겨 예배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기독교가 영생이라는 삶을 추구하고, 교회가 교회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원교회는 전원에서 교회적인 삶, 즉 지체들이 함께 먹고, 자고, 교제하는 삶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방문했던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갈 때에는 교회나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도시인들이 선호하는 유기농 농산물이나, 무공해 저공해 농산물)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실제적인 유익과 함께 서로의 이해가 두터워질 것이다.

## (2) 휴식하는 집으로써의 공간

현대 도시인들이 여유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도시를 떠나는 것은 휴식이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특별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되 가족과 함께 휴식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강하다. 이것은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 도시인들에게 매우 바람직한 욕구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전한 욕구를 농촌교회가 도와줄 수 있다. 각 교회마다 흙으로 지은 작은 토담집을 하나 마련할 수 있다면, 흙집에서 얻는 유익과 느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혹은 소그룹별로 농촌교회를 찾아 하루 또는 그 이상의 시간들을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이다.

## (3) 교육과 훈련의 공간

도시교회에서는 크고 작은 규모의 각종 모임들이 있고 수시로 수련회, 즉 교육과 훈련의 기회들이 있다. 그러나, 항상 어려운 점은 주변의 방해받지 않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자체 시설이 없는 경우, 콘도와 같은 일반 시설을 사용하며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요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보다는 소그룹의 모임을, 잘 갖추어진 큰 시설보다는 민

박과 같은 형태의 정감어린 장소를,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어울리는 유원지보다는 조용히 가족들끼리 지낼 수 있는 공간들을 원하고 있다. 농촌교회가 소그룹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시설을 준비할 수 있고 주변환경이 좋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 서로 유익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3) 체험의 장(場)을 제공하는 역할

#### (1) 몇 가지 가능한 형태

① 일시적인 작은 모임들 : 계절이나 절기에 따라 도시인들이 많이 찾는 때에 음악회나 시 낭송회, 혹은 민속놀이나 체육대회 등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주말학교, 계절학교 : 주말이나 방학 시간 등을 이용하는 형태이다. 주말학교는 자연 관찰이나, 생태운동, 등을 내용으로 하게 되고, 계절학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체육과 레저활동, 취미와 문화활동을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강사 확보와 재정 부담의 문제가 있으므로, 교회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련해야 한다.

③ 공동체학교 : 공동체학교는 그리스도안에서 서로의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고,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어나, 함께 어울리는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묵상과 자연과의 대화, 노동과 농사체험, 인간관계와 피드백, 공동체놀이 등을 내용으로 체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 (2) 가능한 체험의 내용들

농촌교회에서 일시적인 모임들이나, 주말학교 또는 계절학교, 공동체학교 등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다양하다. 이러한 내용은 각 농촌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선택되어질 문제이고, 특별히 지역의 특성과 교회의 시행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여러 가지를 욕심내기보다는 한 두 가지 고유한 것을 전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성경공부 (공과공부, 가정훈련, 성인교재)
- ② 목상훈련 (침묵, 고독, 자연과의 대화 등)
- ③ 공동체훈련 (자아확립, 대화적 관계, 자신의 객관화)
- ④ 가정훈련 (결혼준비, 부부훈련, 아버지학교, 가족캠프 등)
- ⑤ 자연관찰 및 환경운동(나무, 꽃, 곤충, 별자리, 각종 환경운동 등)
- ⑥ 노동과 농사체험 (교회와 수련원 가꾸기, 주말농장 등)
- ⑦ 체육, 레저활동 (배구, 농구, 족구, 배드민턴, 등산, 자전거, 스키, 수영, 래프팅 등)
- ⑧ 취미활동 (영화학교, 사진학교, 풍물놀이, 음악, 미술, 춤)
- ⑨ 주변 탐방 및 현장학습 (기독교 박물관, 복지시설 봉사, 군대 방문 등)
- ⑩ 캠핑 (가족캠핑, 아빠와 캠핑, 또래별 캠핑 등)

#### 4) 기본적인 준비

##### (1) 장소 준비

① 자체시설 : 교회의 예배당은 피하는 것이 좋고, 교육관이 있으면 바람직하다. 또, 작더라도 친환경적인 시설이나, 아늑하고 편안하여 호감이 가는 시설이면 좋다.

② 민박시설 : 교인들의 가정에 손님방을 하나씩 마련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경험에 의하면, 의외로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홈 스테이(home stay) 방법은 교회시설을 사용하는 방법과 병행하면 인원을 중간 규모로까지 수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

③ 야영방법 : 텐트를 사용하는 야영방법은 편안한 생활에 익

숙한 도시인들에게는 불편한 방법이지만, 자연에서의 자유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교회 안에 혹은 교회 주변에 방해받지 않는 야영장을 준비하면 좋겠다.

(2) 필요로 하고 좋은 체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준비.

(3) 내용에 따라 전문지도자가 필요하다.

영성훈련, 레저 지도자, 자연관찰 지도, 취미활동 지도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지도자가 필요하다.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는 사람들이 도시를 탈출하여 농촌을 찾게 하고, 다양한 욕구와 함께 삶의 질을 추구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시대적으로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는 농촌교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한다. 전원교회의 확산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하나의 유행일지 모르나, 전원교회의 확산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들의 욕구와 교회적인 삶의 내용은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대를 위해 예비하신 교회로써, 능동적인 자세로 역할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